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성형공화국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2011년 한 해 동안 무려 65만 건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그런 소리를 들을 만도 하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크고 작은 각종 후유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망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며칠 전에는 부산에서 이른바 양악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여대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유사한 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라고 한다.

이 외에도 안면이 마비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거나 드물긴 하지만 시력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결과적으로 원래 모습보다 보기좋은 얼굴이 되기 싫상인 것이다. 이를 비판한 나머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생겨날 정도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성형수술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가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우리사회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욕두문자로 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된다.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집짓는 데나 사용해야 할 공구들이 자기 얼굴 위에서 멋대로 춤추도록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얼굴에는 눈, 코, 귀, 입 등을 연결하는 미세한 혈관과 신경세포들이 거미줄처럼 분포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진대 얼굴을 마치 기계부품처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양악수술이 얼마나 위험한 작업인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오죽했으면 수술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수술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미리 보게 한 다음 최종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 광경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아무튼 예쁘게 보이고 싶은 세속적 욕

망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죽어도 개의치 않는 이기심을 조장하는 사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민낯이 되고 말았다.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탓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다.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은 공업(共業)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새삼스럽지만 <효경>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신체발부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글자의 뜻 그대로 모든 덕의 근본인 '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과 터럭과 살갗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한다는 가르침이다. 자신의 몸은 결코 자기 혼자만의 것일 수 없다. 가깝게는 부모와 그리고 멀리는 선대조상과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생명연속체이다. 그런 만큼 마음 내키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가벼운 물건이 결코 아니다. 참으로 소중하게 가꾸고 지켜야 할 일종의 공동 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형수술은 이와 같은 공자의

도덕명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회현상이다. 하긴 공자가 성형수술이 요즘처럼 유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경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래도 성현의 말씀은 곱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법, 여기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재화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성형수술의 만연도 그와 같은 삶의 연장선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소위 말하는 외모지상주의와 성의 상품화가 어디 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 일인가?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 이상 성형수술을 바라보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병원에 데려가는 사회분위기는 정말 제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더라도 과도한 욕심은 언제나 재앙을 불러들일게 마련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목숨을 걸고 예뻐지려는 이들에게

사부대중 칼럼



성태웅 건국대 철학과 교수

조계종 제34대 집행부가 출범하였다. 자승 스님의 연임을 두고 여러 우려곡절이 있었지만, 상당한 표 차이로 연임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정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를 바탕으로 약속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있다.

새로운 집행부에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단순하게 말한다면 연임의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대화되도록 해 달라라는 것이겠다. 전 집행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부족했던 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 집행부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겠다.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전 집행부에 이루어진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조계종이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 사회적 위상을 높였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양극화의 문제, 종교 갈등의 문제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심

연임 장점 살려 종단 변화 이끌어 주십시오

각한 문제의 현장에 뛰어들어 사회의 문제를 불교의 품안으로 끌어안은 점은 상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아픔을 함께하여 노력했던 점들은 매우 발전적인 변화였다.

이런 사업들을 통하여 불교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종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늘 정권에 이끌려가던 모습을 탈피하고 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정책에 불교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전향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흐름이 정말 불교의 발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수렴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조계종의 행보가 치밀한 계획과 그를 뒷받침하는 조직 역량이 없이 졸속하게 결정되거나 총무원장의 돌출성 행보로 이루어진 듯하다는 비판도 있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이제는 진정 조계종의 행보 자체가 철저한 계획 아래, 또 조직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전 집행부에서 뿌려놓았던 씨앗을 성실한 노력을 통해 거두어야 한다는 말이

다. 사부대중의 힘을 모아서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정책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 가운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승단의 청정성과 승가의 위상을 정립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자승 총무원장을 위시한 전 집행부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온건 타협의 노선 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노선 덕분에 극단적인 썩어짐이 없이 무사히 여러 문제들이 봉합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 반면의 역효과 또한 매우 크다. 승단 내부에서는 적당한 타협과 봉합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종도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오히려 의구심이 증폭된 점이 있으며, 승단 내에서도 자괴와 자조의 분위기가 만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중도는 그 청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권위가 생기는 것이며, 그 권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화합이라는 명분이 잘못되면 미봉이 된다. 주로 봉합을 위주로 하다보면 오히려 바탕이 무너져 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권위는 자체의 역량에 의해서 자겨져야 하는 것

이며, 그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는 밖에서 힘이 작용하기 전에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스스로 엄하게 단속하고 정화하는 모습이 바로 종교적 권위의 근원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러 여건상 피치 못한 이유가 있었다하더라도, 전 집행부는 스스로 엄하게 단속하고 정화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하였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서는 한걸음 크게 나아가 자신의 품은 곳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의지가 필요할 것이며,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분명한 선언과 그를 뒷받침하는 규정, 조직의 쇄신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연임이라는 것은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관성 있고 연속성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한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어 조계종의 변화와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는 종도들의 소망이 뜨겁다. 큰 성원이기에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 올바른 길에는 모든 종도들의 성원을 통하여 불보살의 가피가 내리신다. 확신 아래 당당한 행보를 보이는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社說

신도회 체질 개선이 불교 발전 원동력

사찰 운영에 있어서 신도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느때보다 높다. 이런 가운데 일반 신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도회 권한이 커져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신도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 일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중앙신도회 수장인 이기홍 회장이 사찰 신도회가 교구 신도회로 이어져 중앙신도회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데 연결고리가 없으며 촉사만 하러 다니는 회장이 되는 것은 사양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계종은 1995년 조계종 신도등록을 시작하며 신도법을 정비해왔다. 1994년 중앙신도회 관련 신도법이 공포되고 1997년 중앙신도회가 창립됐다.

문제는 하위조직에 대한 권한이 없는 조직으로 중앙신도회가 운영되는 점이다. 종단에서도 꾸준히 신도 조직화를 외쳤지만 행정단위와 교구단위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교구신

도회가 구성된 사찰은 15곳. 전체 24개 본사 중 아직까지 신도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무려 9개에 달한다. 하지만 일선 사찰의 신도회는 현황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란게 주 이유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성된 사찰 중에서도 교구 신도회로서 제 역할을 하는 곳이 소수라는 점이다.

중앙신도회 한해 예산이 1억 2000만원에 불과해 이 예산으로는 교구신도회를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물론 일부에서는 스님들이 신도들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승가와 재가는 불교를 구성하는 양축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의식 개혁을 통해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각 사찰서 신도회를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것도 그 개혁의 출발이다. 재가자가 출가자의 단순 보조자라면 머무른다면 불교 발전의 원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장학제도는 인재 불사 밀거름

장학제도는 인재 양성에 밀거름이 되는 중요한 지원책이다. 사회에 적지 않은 단체들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조계종 역시 마찬가지다.

조계종 장학승 제도가 확립된 것은 2010년 6월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령'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이전에는 조계종 차원의 장학승 선발은 해외에서 수학하는 스님들에게만 한정돼 있었고, 지급인원과 금액이 불규칙해 일회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령'의 제정은 종단 인재양성에 새 전기를 맞게 됐다.

또한 학업을 마치고 나서 일정 시간을 종단에서 활동하게 해 인재 활용의 기회도 열어놓게 했다.

종단 장학승에 선발된 스님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또한

종단 장학승이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 봐도 장학제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내년도 조계종 장학승은 사찰승가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스님까지 포함해 30명의 인원을 선발한다. 종단 장학승 선발 분야는 응용불교학, 불교문화, 불교사, 언어학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종단 내 연구가 부족한 계층과 근현대 한국불교사, 종교법무에 대한 연구자를 우대한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했듯이 이 같은 장학제도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 지원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선발 인원도 늘려야 한다. 특히 연구 취약 분야와 미래지향적 연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인재가 숲을 이루야 그 단체의 비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안착 일로를 걷고 있는 조계종 장학승 제도가 더욱 발전해 불교 인재 발굴의 밀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b>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b>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b>편집국</b>	02)2004-8253 FAX (02)737-0698 (02)2004-8213-6 FAX (02)737-0696	<b>회사용 연불닷컴</b> www.hyunbul.com <b>실시간 뉴스 연불뉴스</b> www.hyunbulnews.com <b>쇼핑몰 연불샵닷컴</b> www.hyunbulshop.com
<b>현대불교 지사안내</b>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서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문론의 명 책자 신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용,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